

일주문



도배물품 후원자 모집
의정부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장
일명 스님은 지역 내 노인주거개선사업
을 실시하며 도배물품 등을 후원해 줄 후
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031)852-2595



신라고찰 중창불사 대법회 봉행
구미 문수사 주지 혜천 스님은 5월 4일 오
후1시 지장 스님(직지사 주지)을 법사로
'신라고찰 중창불사' 대법회를 봉행한다.
(054)471-3771



중국 문화 절단 초창
대구 불광사 경북대학교학장 돈관 스님은
5월 5일 오후 7시 중국 '사해보닝' 문화 사
절단을 초청, 오페라 경극과 소림 무술사
들의 공연을 개최한다. (053)792-1353



광주 법흥사 창작무용
광주법흥사우하 스님은 5월 8일 오후 7시
30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북
도립국악원 무용단원들과 함께 '법패소리
와 창작무용'을 선보인다. (062)945-2588



자비 경로잔치 개최
군산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은 5월 3일
흥천사 앞 광장에서 '제10회 자비의 경
로잔치'를 개최한다. (063)445-3769



제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4월
30일 오전 11시 말레니에서 힐튼 그랜
드볼룸에서 제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
자 초청 축하연을 연다. (02)732-7274

허균허난설헌 賞 수상



수필가 김대원씨

대한불교 전국산악인물
자연합회 최 사무총장 김
대원씨(사진 가운데)가 문
단활동을 왕성하게 펼치
고 있다. 김씨는 3월 20일
'탐미문학상'을 수상한데
이어 4월 19일 제20회 '허
균허난설헌 문학·문화

예술상' 시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허균허난설헌 문학상'
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과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 허난설헌의 문학과
예술, 그 업적과 뜻을 기
리고자 제정된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임연태 기자

“효 문화원 기능할 병원 운영할 터”

안성에 파라밀 양·한방병원 개원하는 각현 스님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적으로
노인이 차별받는 시대를 맞아 너
무 안타까웠습니다. 전통적 미덕
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
다 보니 이번엔 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이 병원을 준공했다. 경
기도 안성에 위치한 이 병원은
2003년부터 설립하고 있던 '효문
화원'이 연꽃마을을 의료법인을 통
해 병원으로 모습을 바꾼 것. 5년
동안 제 모습을 찾지 못했던 건물
이 이제 '파라밀 양·한방병원'이
하 파라밀병원'이라는 이름으로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연면적 약 8211.6㎡에 지상 6층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 요양병
원과 한방의원으로 설립된 파라밀
병원은 진료과목으로 내과, 가정

의학과, 외과, 한방과를 준비했다.
시설로는 입원실과 인공신장실,
터미널케어실(호스피스병실), 입
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
실, 상담실, 재가노인복지센터, 실
버용품 대여·판매점, 식당, 장례
식장 등이 개설했다. 특히 건물 6
층에 약 2314㎡ 규모로 아미타불
을 모신 법당도 이미 조성했다.

“다른 병원에 비해 법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따로
설치해 공간을 제대로 확보, 이용
률을 높이고도 할 계획입니다.”

스님은 법당을 통해 '효문화원'
의 기능과 역할도 제대로 살릴 생
각이다.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3년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온 일본
중앙대학 학생들의 교환 연수 장
소로 이용, 봉사·실습을 통해 사
회 속에서 노인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스님은 연꽃마을 이사장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1700개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경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러 경기복지미래재
단의 수장이기도 하다. 스님은 “바
쁜 일이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사
람으로서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스님은 할 일이 많다.
당장은 연꽃마을에서 유로노인시
설인 경주실버맨션을 옮겨 짓기로
건축 허가를 받아 이 사업을 진행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준공은 했지
만 파라밀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려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기에 스님은
마음이 바쁘다.

“이번 병원 설립은 어르신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거의 모



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원 스
톱(one-stop) 서비스 체제를 완성
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시설을 하나 설립하려
합니다. 항상 복지에서 특이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할 것”

개관 10주년 맞은 옥수복지관 관장 상덕 스님

“지난 10년 동안 하루하루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축
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 도움으로 성동지역 주민분들
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한결
같이 자리를 지켜온 지 벌써 10년.
4월 29일 옥수종합사회복지관 10
주년 개관행사를 진행한 관장 상
덕 스님은 지금까지 옥수복지관
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이
렇게 말했다.

그 동안 상덕 스님은 옥수복지
관을 맡아 그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역사회복지관을 한 해도 쉬지
않고 이끌어왔다. 스님은 복지관
에서 노인,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지역주민 등의 계층을 각각 만족
시키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진
행하기 위해 애써왔다.

“옥수복지관은 지난 10년간 자
립·안정·도약·발전기로 나눠
운영해왔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
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새

현대불교·구독신청 (02)2004-8200



로운 비전인
'3C계획'을
통해 더 좋은
복지서비스
를 펼치고자
합니다.”
스님이 말
한 '3C계획'
이란, '펀 해피(Fun-Happy)운영'
의 일환으로 Client(대상자),
Center(기관), Community(지역사
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업
을 말한다. 즉, 기관에서 책임의식
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자들의
욕구를 제때 파악해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와 주민, 기관이 조화되고 함
께하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지역
사회와 주민·기관의 관계가 극
대화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
이 스님의 뜻이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전문 프로
그램을 시행해 지역주민들의 행복
을 창조하고 선도하는 중견복지관
으로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
금껏 성취해주셨던 분들이 넉넉한
도반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
으면 합니다.”
김강진 기자

“체계적 포교사업 돕겠습니다”

종무행정 프로그램 개발한 전병규 대표



“부처님오
신날이면 여
러 사람이 연
등을 밝히는
어머니를 생
각하며 만들
었습니다.”

탐스컴 전
병규 대표가 웹
기반 종무행정
프로그램 '수비라'를 만들게 된 동
기다. 사람 곳곳을 찾아다니며 연
등 점수를 하던 어머니를 대신해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를 고
민했던 것.

전 대표가 운영하는 탐스컴은
2000년 설립된 벤처 1세대 기업으
로 주로 금융기관과 관공서용 프
로젝트를 담당했다. 하지만 가
법치 않은 불연에 불교 커뮤니티
사이트나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개
발하게 됐다.

탐스컴의 자랑은 '내 마음의 법
당'이라는 찾아가는 이메일 법당
서비스와 국내 최초 웹기반 종무
행정 프로그램 '수비라'다. '내 마
음의 법당'은 별도의 클릭도 필요
없이 이메일만 열면 사찰 법당이
눈앞에 펼쳐지는 서비스다. 이미

일을 통해 법당 참배는 물론 핸드
폰, 카드 등을 통해 시주도 할 수
있다. '수비라'는 기존의 종무행
정 프로그램의 장점을 모아 웹
기반에서 구현시킨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보안성이 뛰어
나다.

탐스컴이 두 제품 모두 개발하
는데만 각각 3년여가 걸렸고 비용
은 3억여원 넘게 들었다.

현재 '내 마음의 법당', '수비
라'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도사
수원포교당을 비롯해 50여곳 가
까이 되며 입소문을 통해 점차 적
을 사람이 늘고 있다.

전 대표에게는 꿈이 있다. '내
마음의 법당'과 '수비라'를 운용
하는 사람을 불교마을
(www.templevill.com)에 모아 불교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포교사
업이 이뤄질 수 있는 사이버 불국
토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전병규 대표는 “'수비라'에 대
한 교계의 열렬한 호응에 불교마
울이 사이버 불국토를 이룰 날이
머지 않았다”며 환한 미소를 띄
웠다.

조동섭 기자

전국 어린이연꽃노래잔치



블고레코리에이션협회(회장 송복)는 4월 20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공
연장에서 제20회 전국어린이연꽃노래잔치를 진행했다. 대상은 홍승은
(12·제주불교 우담바라원장) 어린이가, 중·합창부문 최우수상은
부산통도사포교원 불자어린이합창단이 수상했다. 김강진기자

대각사 단청불사 회향식



울산대각사(주지 대각)는 4월 20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과 원효종
경남남교구종무원(종무원장 영문) 지역 스님 20여명 등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 단청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월운 스님
은 “부처님 법을 바로 알아야만 인력과 순간순간 바른 판단력을 갖
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순법전 대구지사장

난치병어린이들이 3000배 정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성원이사대)은 4월 19-20일 서울 조계사
에서 제8회 난치병어린이들이 3000배 정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
사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대오 스님과 삼선승가대 학
인스님을 비롯한 800여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김강진기자

자비신행회 법차 마련



광주 대표 수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경)는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심시일반 법차'를 정진했다. '심시일반 법차'는
전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했으며, 차량내부에 1000명용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보각사 낙성법회 봉행



전주 보각사(주지 향산)는 4월 29일 태고종 승정원장 남파스님을 주
법사로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낙
성법회 후 일승정약회는 생활영면이 어려운 정을 인식하고 학생 2명
에게 각 120만원씩의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모님께 사랑가득! 최고의孝 선물

성인병(당뇨·고혈압) 예방

첫서리맛은 금강선원 뽕잎차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중구포 뽕잎차의 특징

- 1. 혈당이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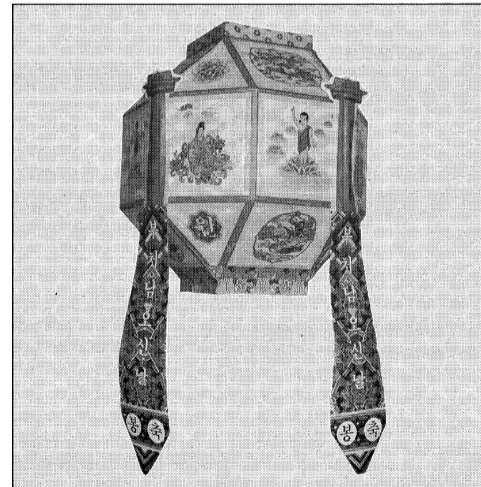


스님께서 아홉번 찌고 말린 금강선원 첫서리맛은 뽕잎차는 금강선원의 선원봉사와
법당봉사에 회향을 하오신 신심 있으신 불자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강선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이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를담고 몇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염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시찰의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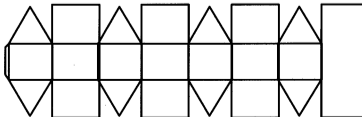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족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시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결지 합치 방식)



현우기획

전화 : (043)877-6464 팩스 : (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043)877-8236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 (주)국민은행
■ 농협 415051-51-000057 예금주: (주)국민은행